고은 불교 대하소설

또 한 사람의 행방불명

수원이 그 아이에게 말을 시켜 보았다.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대꾸는 커녕 이쪽의 수원에게 고개를 돌려 보지도 않았다.

"네 이름이 무엇인고?"

"..."

"내 이름은 수원이란다. 그러니 네 이름도 알려주어야지?"

"..."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짐승들이야 갑이다 을이다 하는 이름이 있을 리 없지."

그때에야 홱 앵돌아진 새침떼기 얼굴을 수원 쪽으로 돌렸다. 아리따운 아이였다. 어린 아이가 그토록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단련된 것 같은 인상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수원은 섬뜩하였다.

"절에 들어가 도를 닦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름 타령입니까? 이름에나 의지해서야 그것이 어디 참다운 것이겠습니까?"

수원은 이 성숙한 말투에 무번 섬뜩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이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흔히 조선사회에서는 남존(男尊)체제이므로 여자에게 이름 따위가 없기 십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격하던 양반 중심의 체제나 가정의 까다로운 관행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함으로써 계집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아비가 묵인하는 일이 많다. 엄마로서는 그녀 자신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변변한 이름도 없이 한평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비분강개가 마음 깊이 박혀있을 법도 하였다.

아무튼 수원은 그 머리를 곱게 따서 앙징맞게 댕기까지 드린 아이에게 불현듯 괴를 썼다.

"얘 옥아(玉耶)야!"하고 불렀다.

"흠 내 이름은 옥야가 아니어요. 점이(岾伊)예요. 내 등에는 점이 아홉개나 있거든요."

"네가 점들을 어찌 보았느냐?"

"엄마가 보셨지요. 엄마 눈이 내 눈인 줄도 몰라요? 대사는 헛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마치 열대여섯살의 당돌한 소녀가 내뱉은 말 같았다.

그런 아이를 수원이 유심히 쳐다 보았다. 그로써는 할 말이 막혔던 것이다. 말이 막히자 장닭이 힘센 중병아리 한 놈을 눈으로 기죽이는 것 처럼 노려보는 수 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수원이 놀랐다. 아이의 눈매나 콧마루 그리고 입과 귓불이 다 무육도에서 세상을 하직한 비구니 합두의 얼굴과 닮았던 것이다. 어디서 본 아이 같다는 또하나의 인상이 바로 합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점이야, 네가 정녕 세상이 물바다 불바다가 된다고 말하였더냐?"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참 어리석은 도인이셔요! 세상이 불타거나 물 속에 파묻히거나 그런 일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머지 않아 물과 불이 난리를 일으키는 일은 대사의 몸안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오. 대사는 그것도 모르시고 우리 집에 양식을 얻으러 오셨어요?"

"내 몸이 무너진다는 말이냐?"

"그렇다 마다요."

수원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겁 없는 말에 겁을 먹지 않을 수 없다.

> "세상이 불타거나 물 속에 파묻히거나 그런 일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머지않아 물과 불이 난리를 일으키는 일은 대사의 몸안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오. 대사는 그것도 모르시고 우리 집에 양식을 얻으러 오셨어요?"

일찌기 그는 인담으로부터 당나라의 약산(藥山)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날 약산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법당이 무너진다! 법당이 무너진다!"

그러자 절에 있던 대중들이 깜짝 놀라



48

"그런데 이 대사님이 자꾸 나를 노려보아요."

"이제 들어가야지."

라고 어머니가 타일러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걸어가는 치마 밑의 마당이 젖었다.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를테면 대뇌가 지나치게 발달한 아이가 다른 신체의 부위는 아주 지나치게 미숙하거나 불구상태인 것인지 모른다. 늙은 개가 나타나 아이의 오줌자국을 핥아먹었다. 그러고 보니 그 집의 바깥마당과 안마당 사이의 낮은 담밑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던 개도 통 짖을 줄 모르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바로 이 늙은 개도 서산과 안면도 일대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는 동안 그 폭우 속에서 집채가 흔들리는 지진이 몇번 지나갔는데 바로 지진 전야에 어떤 기척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짖어댔다 하였다. 그런 개가 수원이 그 집안에 있는데도 가만히 눈 감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듣기에는 덕숭산 수덕사도 요즘은 대사들이 거의 비워서 빈 집이나 다름없다 합니다. 한달전 우리 세 사람—본부인, 둘째부인과 그녀 자신—이 함께 그곳으로 불공을 드리러 갔다 왔는데 그저 법당지기 스님 한분이 우리를 맞아들이데이다."

"허어 수덕사가 비다니요."

이제 임첨지는 그 집안 살림의 실권을 셋째부인에게 넘겨주는 사태까지 되었다.

그녀에게 단단히 반한 나머지 밥상도 반드시 겸상인데 그 겸상으로 마주 앉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임첨지의 무릎에 그녀를 앉혀서 서로 밥을 떠 넣어주기를 다투는 형편이라 하였다.

밥상머리 반주조차도 한 잔 가득히 부은 술을 서로 조금씩 입속을 적시는 일을 번갈아가며 빈다 하였다.

이런 처지이므로 본부인은 공연히 투기나 일삼는 것이 그녀의 의젓한 품성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아예 곳간자물쇠 꾸러미를 그 셋째에게 맡겨버렸다 한다.

"나야 이제… 이 집의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네. 예로부터 곳간에서 인심 난다하였으니 부디 이것을 무슨 권세로는 알지 말게… 오직 잘 꾸려나가겠는가… 자네를 내가 믿네."

아무튼 큰 부자인 임씨네 살림은 그 명분은 본부인에게 있고 실질은 셋째부인에게 있게 되었다.

둘 사이의 둘째부인은 주로 집안의 하인배나 소와 나귀 그리고 일꾼들을 관리하는 바깥일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런 집안에서 무육도에의 관심은 깊은 신심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워낙 본부인은 계룡산 갑사와 마곡사, 그리고 개심사와 무량사까지 두루 시주가 되어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수덕사에는 큰 단월(檀越)이



"괴이한 일이로다" 아무데도 파현의 자취가 없었다

서 모두 법당 주위에 몰려와 버팀목으로 법당을 고이는가 하면 주위에 흙을 쌓기도 하는 등 야단이었다.

그때 약산이 그들을 말리며 말하였다.

"헛참 내 뜻을 모르는군먼."

이 말을 끝내자마자 약산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입적(入寂)해버린 것이다.

이를테면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는 것,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꼭 찾을 데서 찾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실현이었다.

수원은 아이 앞에서 면목이 없어졌다. 마침 아이의 어미인 임첨지의 셋째부인이 집안에서조차 치장을 한 옷매무새의 아름다운 용모로 마당에 나와 아이를 부르는 것이었다.

"들어가 책을 읽어야지…"

"마당 공부가 끝났으니 이제 책 공부를 하겠어요. 엄마."

"음 그래야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무육도 스님들이 수덕사로 옮기시면 어떨지요. 무육도 선원은 건너다니기에도 불편하기가 여간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더이상의 말은 거기서 딱 끊어버렸다.

"그리고…"라고 입 다문 까닭은 수원의 짐작으로는 어린 아이가 틍명스럽게 그곳 일대가 앞으로 재난에 파묻힐 것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하였다.

아무튼 수원과 파현은 그들의 떼배를 물의 포구에서 수선하도록 맡기고 그대신 임첨지네 겸인(兼人)이 따라와서 노는 주낙배 한 척을 마련해 준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주낙 낚시를 그만 둔지 오래되는 낡은 것이라 마음을 놓을만큼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탔다. 볼론 곡식섬과 그 밖의 다급한 물건들이 임씨네 본부인과 셋째부인의 자상한 태려로 배에 실렸다.

배는 섬의 선착장에 닿았다.

인담이 나와 있었다.

"아니 파현수좌는?"

"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이 배를 함께 탔는데… 짐 뒤에 있었는데…"

"오는 동안 서로 말도 주고 받지 않았오?"

"선객(禪客)이야 굳이 말할 것이 없다면 무엇하러 허튼소리나 나눌 일이겠습니까. 저는 앞에 있었고 파현은 뒤에 있었는데…"

"오는 중에 무슨 일이 난 것은 아니오?"

"바다에 풍덩!하고 몸뚱이를 던지는 소리라도 들었느냐는 말씀입니까?"

"아무튼… 자취 없이 사라진 것이 걱정이오."

수원은 인담 우녀에 대해서 차츰 어떤 죄라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파현이 사라진데는 수원의 데면데면한 것이 기회가 된 것은 틀림없다. 결코 먼 물길은 아니더라도 배의 가운데에 실은 짐의 앞과 뒤에서 서로 살가운 말이라고 주고 받는 사이였다면 최소한 파현이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있었다.

쨌거나 선착장의 배에서 인담과 수원이 곡식섬과 블건들을 옮기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끝내 우녀까지 등짝에 무거운 물건을 지고 바위등걸을 오르다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제 셋이로군, 셋뿐이로군."

이라고 인담이 얼굴의 땀을 훔어내며 배의 짐을 다 옮긴 뒤 구슬피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고보니 무육도 숲속에서 살고 있던 새들도 떡 줄어들었다. 이른 아침의 새소리가 벌로 들리지 않게 된 것은 세사람으로 줄어든 뒤에야 알게 된 일.

그림 · 조향숙

설악산 통일 청동대불좌상 완공

"세계 최고의 장엄신으로 신흥사 도량에 나투셨습니다"

다 겁생에 서원을 세워

저는 세계 최고의 위용으로 장엄하신 부처님을 조성하고자, 다겁생에 걸쳐 서원을 다져 왔음을 이 불사 기간에 거듭거듭 깨달았습니다.

자비스럽고 원만하신 상호

저는 세계 최고의 위용과 원만하시고도 자비스러우신 상호를 표현하기 위해 10년에 걸친 이 불사기간 중, 단 한순간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상을 염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세기 최대불사

천추만세(千秋萬歲)를 넘어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중생의 고난을 건져주실 자비의 미소상을 우러러 해마다 1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귀의례를 올릴 수 있게 한 이 불사는 단연코 금세기 최대의 세계적 불사입니다.



〈김성호 관장〉

최고의 불모(佛母)가 되고자

저는 더욱 신심을 돋우고 기량을 닦아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호를 입고 금세기 최고의 불모된 명예를 더욱 빛내기 위해 쉬지 않고 정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에 봉사합니다.

- 노천불 조성 · 봉안
- 불상 · 불화조성
- 탑파 · 석굴 법당 설계 · 건조
- 법당 내부 장엄

■ 전시관 : 서울 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38-2
☎ 사무실 : (02) 733-4800, 739-2991
FAX (02) 739-2992
자 택 : (02) 591-9197

불교미술전시관 관장 김성호 (성도) 합장

